

마가복음 4-5  
Tape #C2519  
By Chuck Smith

4 장은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 하신 이유에 대한 잘못된 의견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 비유의 목적은 진리를 가리우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 부연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비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 우리는 모두 인생이나 인생에 연관된 문제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 그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자연스럽게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각각의 비유 속에는 수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 하지만 진리를 직설적으로 가르칠 경우 ,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 므로 비유의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 이것은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 어떤 비유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었기 때문에 ,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원 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 많은 비유들이 바리새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행동에 관해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 때때로 비유 속에 암시된 가르침을 사람들이 그 즉시 깨닫지 못할 때 , 예수님은 그것은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 장에서도 다루어졌는데 ,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어 마가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4: 1 )**

3 장에서도 예수께서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띄우도록 명하셨습니다 . 이번에도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자 그분은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 마가복음 3 : 1 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지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병이 낫게 된 사건을 본 사람들은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져 보려고 했습니다 .

이것이 하나의 법칙처럼 되어버려 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분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 이로 인해 모여든 무리가 서로 밀쳐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마다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만일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만져 보려고 이리저리 밀고 당기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십시오 . 때로는 모인 무리들을 상대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 바닷가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

6 장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남자만 오천 명이라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가족 단위로 생각해서 부인과 아이 한 명씩만 합쳐보아도 만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모인 것입니다 .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대한 무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 작은 배를 띄어 무리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분은 그 곳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으라 .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 지매 씨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 더러는 좋은 흙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가 되었느니라 .” (4: 2-9)

그 당시에는 생활기반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돌로 만든 집과 망대가 있는 자신들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처럼 그들 모두는 농경사 회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 그들에게는 항상 땅에 대한 친근감이 있었 습니다 . 그래서패수님은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씨 뿌리는 비유 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 예수께서는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실 , 즉 씨가 뿌려지는 다양한 종류의 토양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 이 비유는 모인 모든 무리에게 참으로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습니다 .

최근 한 사회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것은 미국사회가 농경사 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 가는 도중에 발생한 변화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전미국사회와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 대 한 태도는 물론 자녀 수에 대한 생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기뻐합니다 . 왜냐하면 , 한 농부에게서 아이는 , 그가 18세가 되기까지 아버지를 도와 약 팔백만 원 정도의 노동력을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어려서부터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 즉 트랙터 를 운전하는 것과 땅을 어떻게 경작하는지 , 추수 때에는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 가게 됩니다 . 농경사회에서 아이의 존재는 참으로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 즉 아이 들은 재산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 그들 모두가 환영받기 마련입니다 . 하지만 여자 아이들보다는 남자 아이들을 더 원하게 됩니다 . 왜냐하면 , 남자가 여자보다는 더 많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점차 농경사회가 도시산업화된 사회로 바뀌어 김에 따라 태어나는 모 든 아이들은 이제

하나의 책임져야 할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대학을 다니는 18세까지 약 사천팔백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 모두가 부모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이 한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아이들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사회현상들, 예를 들면 어린 아이 학대와 같은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미국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해 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현 대사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타당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 당시 그들 모두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친근한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신 비유는 그들 모두가 씨를 뿌리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부담없이 와닿았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 (4: 10-12)**

이 말씀이 예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를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이 비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곳에 모인 군중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았으나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는 못해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 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있는데도 전파되는 말씀이 인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쁨 권유에 못이겨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자고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왔는데도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단지 설교내용 중에 무엇인가 모순점을 찾아내어 반박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려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무엇인가 트집을 잡기 위해 듣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오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전혀 듣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 ” (4 : 13)**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열쇠를 주십니다. 주해적인 관점에 볼 때, 모든 비유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모든 비유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을 뜻하므로 씨를 뿌리거나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툴러지고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를 모른다면 다른 비유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주해적인 관점에서의 일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4:14-20)

공중에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는 말씀은 곧 사단을 의미합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 버리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틈도 없게 됩니다.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혀 열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자마자 그들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 채 사단이 즉시 와서 거두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말씀으로 인해 약간의 핍박이라도 오게 되면 쓰러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감정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기쁨은 잠시뿐이고, 시련의 때가 오면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이 경우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이 경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시떨기 속에 있다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말씀을 질식시켜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결실도 없게 됩니다. 결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게 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애쓴 사람의 수고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악한 죄인도 아니며 주님에 대해 반항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을 향한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당연히 이루어 나갔어야만 할 일들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외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만들고, 주께 드릴 것이 거의 없게 만듭니다. 오늘날 올바른 순위를 가지고 살아 간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세상으

로부터 오는 압박은 무겁고 물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 15: 16)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제 삶에서 주께 드릴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 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 21-23)**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던 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  
우리의 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틀을 수도 알 수도 없는 ,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계속 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평상 아래 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단지 우리에게 들고서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 (4: 24)**

오늘날의 일반적인 성향 가운데 하나는 “한번 들어보자”는 태도입니다 .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거친 목소리의 진행자가 “하나님은 꽃입니다”라고 하면서 허튼 소리를 늘어놓곤 합니다 . 이 경우 사람들은 “한번 들어보자”라고 생각하며 듣습니다 .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말 합니다 .

놀랄 만한 회심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 그는 빅터밸리 (Victor Valley) 란 곳에서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 성공적인 경영인이었습니다 . 그는 트랙터 대여 업도 운영하며 굴착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 여러 분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 그는 성공회에 다녔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었습니다 . 다시 말해 성탄 절이나 부활절에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밤 , 그는 아픈 아기를 안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 꿈에서 그는 그 아기를 위해 기도했고 곧 그 아기는 깨끗이 나왔습니다 .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전히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 그리곤 다시 잠에 들었으나 세번씩 이나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과 전화로 그 꿈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 목사님은 이런 일은 폴 스미스란 사람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에게 연락해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 그 친구의 전화를 받은 폴 스미스는 그에게 치유에 관한 성경말씀을 들려주면서 치유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

한번은 얼마 후 그가 트랙터 부품이 늦게 도착해 주문했던 고객에게 저녁이 되어서야 그 부품을 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 그 집에 갔을 때 집주인 남자는 없고 안주인만 있어 그녀에게 부품조립을 어떻게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 그가 일을 마치고 떠날 즈음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 그 부인이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데려왔을 때 ,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 울고 있는 그 아기는 그가 바로 꿈 속에서 보았던 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는 아기가 왜 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 그 어머니는 자신이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아기가 휘발 유를 먹었는데 이것이 아기의 위벽을 상하게 하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위경련이 일어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음식이 위에 들어가 위경련이 일어나는 고통보다 아기의 배고픔의 고통이 더 커지기 기다렸다가 아기에 게 음식을 먹게 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천천히 회복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 아기가 또다시 배고파 하며 울 자

아기에게 음식을 먹여야겠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얼마 전 꿈 속에서 한 아기가 내 품속에서 울고 있기에 그 아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아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 아기가 바로 이 아기였습니다. 제가 잠시 아기를 안고 기도해도 괜찮을까요?”하고 말을 건넵니다. 괜찮다는 말을 들은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배고프다고 아기가 보채자 그녀는 “아기에게 음식을 먹일 동안 좀 기다려 보시겠어요? 음식이 위에 닿자마자 아기가 고 통으로 소리를 지른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기가 음식을 먹을 동안 옆에 계속 있었지만 아기는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기는 완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는 아마도 주님이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클레어몬트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자유주의로 물든 학교였고 다른 일반대학보다도 무신론자가 많았습니다. 수업중에 교수가 예수님의 이적을 비롯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모두 다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말들을 할지라도, 성공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하려면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나는 저런 쓰레기 같은 말들은 안 믿어’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을 잠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위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자꾸만 그에게 틀러지게 되자 그는 어느새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무엇을 듣고 있는지 듣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번은 우연히 그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구절을 가리키며 “그건 믿을 수 없어. 원전에는 없거든...”하고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자기가 쓰레기처럼 여겼던 것들이 어느새 자기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의 주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회의와 방황 끝에 그는 자기 차 안에 앉아 45 구경 권총을 자기 머리에 겨누는 채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클레어몬트신학대학에서 그가 받았던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나머지 자살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큰 혼란 속으로 자기를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위로하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곧 그 학교를 그만두고 한 마을에서 작은 교회를 열고 사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듣느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육체의 일을 심고서는 영의 일을 거둘 수 없습니다. 나의 귀로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십시오. 귀로 들어가는 그것이 흔적을 남기고 즉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던져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서는 안됩니다. 듣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평가기준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그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받으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라 .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 (4 - 26-29)

씨는 말씀입니다 .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 주일저녁에도 와서 말씀을 살펴보고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집니다 . 즉 말씀의 씨가 심겨집니다 . 그리고 잠을 잘 때도 , 일상적인 생활속에서도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 곧바로 그 영향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천천히 처음에는 싹으로 , 다음에는 이삭으로 ,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 즉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매일매일 심겨지고 자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고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 영광스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 이 말은 영으로 뿌리게 되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

가끔 우리는 열매를 즉시 보고 싶어 안달하며 참지 못합니다 . 마치 책과 콩나 무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씨를 심은 지 하루만에 모두 자란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장을 원합니다 .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과 정은 많은 경우 겉으로는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 우리는 의식할 수 없어도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보게 됩니다 . 우리는 그분께서 일하신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 즉 주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보게 됩니다 .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아름다운 결과요 가치입니다 . 심지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음이 인식되지 않는지만 천천히 단계적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 날마다 이 과정이 반복 되어 일어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결실한 열매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 이전에는 우리로 화나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 기도해야지’라고 반응하는 자신을 보게 될 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 참으로 그분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 어려워하거나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가 아닌 , 온유하고 인식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 내 속에 심겨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 겨 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 (4: 30-32)

겨자씨는 작고 짐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 그 씨가 자라면 박하와 상록수 같은 향을 내며 , 완전히 성장하면 어떤 나물보다도 커지며 큰 가지를 맺습니다 . 그런 데 겨자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매우 빨리 자랍니다 .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됩니다 . 바로 여기에 나오는 새들은 바로 사단으로 , 뿌려진 씨 앓을 가져가는 자입니다 .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생겨난 말인데 , 안디옥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 즉 그들이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말입니다 .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

중동에서와 같이 회교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고 , 미국에서는 무신론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식으로 쓰여 졌습니다 .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국가와는 이주 거 리가 멎니다 .

서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캠프 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 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 라” (눅 6: 27-28) 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런데 기독교 민병대가 와서 팔레스타 인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 민병대가 온 것은 확실하지만 기독교 민병대는 아 니었습니다 . 기독교 민병대가 갔었더라면 그들은 음식과 옷과 약들을 가져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었어야만 합니다 .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 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 적그리스도가 , 특히 대중전달매체 배후에서 모든 사실을 조작하여 소위 기독교 민병대가 팔레스타인사람들을 죽였다고 왜곡된 명칭으로 보도함으로써 모든 기독교인들과 중동지역 회교도들이 미워하 는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사실은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 그래서 인지 기독교나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는 만화들을 지주 접하게 됩니다 . 한 신문 시사변에는 역겨운 모습을 한 사람이 연기가 나는 총을 들고 난민수용소 번호 2번의 시체를 밟고 서 있는 그림이 나와있는데 , 그아래에는 “기독교 민병대여 , 앞으로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 신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소하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에는 그분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

아직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반 유대주의 감정의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 이 감정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왔고 ,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 들을 미워할 구실들을 찾고 있습니다 . 사도 바울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 망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여 “나의 형제 ,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불행히도 기독교와 교회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 우리의 관광안내자였던 한 이스 라엘인은 처음으로 기독교를 알게 된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 아르헨티나의 어느 공립국민학교에서 다른 소년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 매일 빗발치는 돌맹이를 피해 학교에서 집으로 도망쳐야 만 했다고 합니다 . 그는 그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미워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 미움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는 이주 거리가 멎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는 어떤 민족적 집단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 할 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 야인이나 수구디인이나 ,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 ( 골 3 : 11)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보는 관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진정한 그분의 자녀라면 피부색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색맹이어야 합니다 . 모든 사람틀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 예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 우수한 종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 모두 하나이며 인간이라는 종족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 진정한 기독교 안에서는 편견적인 태도 가 있을 수 없습니다 . 교회 안에



이런 태도들이 지리잡아 왔다는 사실은 불행이며, 아직도 교회 안에는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언제라도 휘몰아치려는 듯이 보 여집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피난처라는 명목하에 온갖 악이 교회를 도피처로 삼아왔습니다. 교회라는 미명하에 초대형화된 세계교회협회는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일들이 세계교회협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 모든 나물보다 커지게 되듯, 이처럼 교회도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큰 가지를 내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4: 35-38)**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무리들에게 떠밀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일하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시자마자 곧히 주무셨습니다. 심지어 어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차게 되었는데도 계속 주무셨습니다. 결국 배에 물이 가득차게 되자 제자들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깨우자,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더러 잠잠하라고 꾸짖으심으로 바람이 멎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 40)**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에는 물이 가득 차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았는데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35 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르셨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저편으로 건너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듣는 것에 유의하도록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4: 4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빌 H 계 이르러 .” (5: 1)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해 있고 길르앗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 이곳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모압광야를 통과하고 암몬지역을 통과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 민수기 32 장을 보면 , 그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하며 간청 했습니다 . 이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 ”고 모세가 책망하자 그들은 “ ---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하면서 이 곳에 정착했습니다 . 그것은 이 땅이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반은 이 땅을 물려받았고 그때 갈릴리 호수의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거라사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힘이 없는지라 .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소리치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 (5: 2-5)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 여기에서 마가는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에 대해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오도록 명하셨는데 , 누가복음에는 이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 가라 하지 마시기를 예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 허락하신대…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 (5: 11-13)

이 내용으로 보아 이천이나 되는 수의 귀신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몇몇 귀신이 돼지를 미혹케 하여 움직이자 나머지 돼지들도 같이 거칠 어져 함께 바다로 내달린 것입니다 . 분위기에 휩쓸려 당황한 나머지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 하셨겠습니까 ? 모세의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도록 되어 있었었습니다 . 돼지 는 율법에 금지된 고기였던 것입니다 .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근거를 없애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

“이에 귀신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 (5: 16-17)

돼지치던 지들이 이 사실을 마을에 알리자 사람들이 와서 귀신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가엾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 낮게 된 것에

감사하기는 커녕 잃어버린 돼지가 그들에게는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소유에 더 관심을 가진 지들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필요보다는 자신들의 소유를 잃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5:20)**

데가볼리는 열 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 (5 : 21-24)**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께로 나아오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십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 아마도 어린 아이와 관련된 일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가 아파 고 통당하는 모습은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열두 살 가량의 딸임을 말해 줍니다. 12년 동안 한 가정에 행복과 웃음을 가져다주던 아이가 죽게 되자 아버지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지만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일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논쟁하는 현장에 야이로가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엄청난 곤경에 처해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편견을 떨쳐버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러 왔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빨리 어떤 수라도 쓰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예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그는 절박함으로 인해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간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는 예수께서 손만 얹어도 아이가 살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지자 많은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에워싸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힘일러라.” (5:25-28)**

이 여인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만지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과 긍정적 고백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합니다. 긍정적 고백은 그 여인이 계속 혈루증을 앓으면서도 단지 “나는 나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사이언스 (Christian Science) 에 속한 것입니다. 여전히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나았다”고 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내가 만지는 순간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으며,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접촉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여전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난 아프지 않아 . 난 나왔어”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긍정적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 이 고 백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 둘 사 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그 여인이 혈루증이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 유대의 법에 의해 그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하며 , 그 여인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 그 여인이 만진 것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그 여인은 자기의 가족과 계속 살면서도 음식은 물론 옷도 만질수 없었습니다 . 결국 유대법에 따라 그 여인은 예배장소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 그 여인은 그들의 의식에 의해 부정하다고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 12 년 동안 그 여인은 어둠의 그늘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 이와 비교해 보면 야이로는 12 년 동안 아이의 재물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그 아이가 가져다 주었던 즐거움이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 반면 이 여인은 그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상태에서 살아왔지만 , 이제는 광명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줄을몸에 깨달으니라 .” (5: 29)**

그 여인은 그 순간 병이 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 그러한 병 고침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어느 주일 아침 , 너무나 아픈 상태에서 잠이 깬 적이 있었 습니다 . 교회에 가기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 일어나 말씀을 살펴보려 하였지만 너 무도 고통이 심해 아들에게 설교부탁을 한 후 , 우울한 심정으로 누워있었습니다 . 그런데 성도들이 주께서 저를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 제가 침대 위 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돌연 ,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 마치 문제가 무엇 이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즉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 낮게 된 것입니다 . 저는 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

얼마 전 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 고열로 몹시 고생 하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손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니 열이 점점 내리고 있었습니다 . 간호원이었던 아이의 어머니가 체온계로 다시 재어보니 완전히 정 상이었습니다 . 이처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도 자신의 몸 안에 일어나 는 병 고침의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 입니까 !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해 줄 필요도 없이 바로 알게 됩니다 . 말씀 속 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 그 여인이 즉시 병 고침을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밀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 하시니 ,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 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 물으시나이까 하되 .’ (5: 30-31)**

“주님 , 무슨 말씀입니까 ?”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 즉 무리들 속에서 떠밀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 왜 갑자기 서서 누가 만졌냐고 하시느냐는 말 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며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찾으셨습니다 . 그 여인은 즉시 자기를 찾고 계심을 알았고 , 예수님도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셨습니다 . 많은 무리 속에서 오직 그 여인만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습니다 . 우리도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을 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 많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여인만이 주님을 만졌습니다 . 바로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그 여인은 믿음으로 그분을 만졌습니다 . 그 순간 그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5: 33-35)**

예수님을 만지고 병이 낫게 된 사실은 3:9-10, 6:56 에서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고 기록되었듯이 ,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신 기록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왜 예수께서 이렇게 멈추어 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 더구나 이때 는 바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는 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 그 이유는 , 예수께서 멈추어 선 그 순간 이미 그 아이가 죽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 그분은 또한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딸의 죽음을 고하러 올 것이라는 사실 도 아셨습니다 . 예수님은 딸의 죽음으로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될 야이로에게 큰 연민의 정을 느끼셨고 , 또한 야이로에게 가장 슬픈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는 자기가 아이의 재물을 즐겼던 12 년간의 긴 세월 동안을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그분을 만짐으로써 완치된 사건을 보게 된 것 입니다 .

**‘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들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 (5: 35-36)**

지금 예수님은 흔들리려 하는 야이로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 그분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 야이로가 주께로 돌아선 때는 분명 온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가듯 창백하고 혼란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 “오 , 주 님 , 너무 늦었습니다 . 내 아이가 가버렸습니다 .” 그는 오직 슬픔과 절망뿐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 ‘주께서 단지 딸 아이를 만져주시기만 해도 낳았을텐데...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

**‘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흰화합과 사림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 (5: 38)**

이 당시 죽은 자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 더 크게 울면 울수록 더욱더 죽은 자를 위한 슬픔과 사랑이 나타난다고 여겼습니다 .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업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그들은 크게 우는 일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런 경우에 고용되었습니다 . 이웃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한 가정이 당한 슬픔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실 때 통곡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흰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 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5: 39-41)**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헬라어를 쓰셨지만 이 경우에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말해 “내 어린 양아,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소녀에게 아주 친근한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열두 살 된 귀여운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어린 양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 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떡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5: 42-43)**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 예수께서 이 소녀를 고통과 슬픔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그 부모들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엄청난 슬픔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단순히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더욱 좋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매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축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의 열매를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주께서 그분의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합니다.